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밥이 곧 하늘…밥집이 된 사찰

어르신 하루 데우는 따뜻한 '부처님 밥상'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원각이 5월 11일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고립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공양을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 원경 스님과 봉사자들이 배식을 하는 모습.

오전 7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주방 불을 켜며 서울 탑골공원 골목에 하루 시작을 알린다. 공휴일도, 계절도 쉬어가지 않는다.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 스님)이 운영하는 급식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300명이 먹을 밥과 국, 반찬이 준비된다. 오전 10시가 되면 일정표에 맞춰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11시 30분 문이 열리면 급식소는 금세 분주해진다. 배식을 시작하면 봉사자들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바삐 움직인다. 배식대 한가운데서는 원경 스님이 직접 밥을 푼다.

원경 스님은 2015년 보리 스님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를 이어받았다. 당시 급식소는 스님의 병환과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었다.

"며칠 뒤 급식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길게 늘어진 어르신 줄을 보는데, 누군가의 20년 밥줄이 끊긴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만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무모한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막연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스님은 '떠돌이 급식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실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영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반대로 갈등과 방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무료급식소를 지켜냈다.

"인생은 정해진 대본이 없어 결국 '나'라는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죠. 악역보단 선역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던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스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고 후원을 모아 낙원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했고, 지난해 지금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새 급식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에는 주방, 1층에는 32석 규모 무료급식소, 2층에는 법당, 3층에는 사무실과 접견실, 4층에는 음식박물관과 다실이 들어섰다. 과거 한 공간이었던 법당과 급식소를 분리해 혼잡함을 해소했다. 15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급식소는 현재 30명 남짓 들어갈 수 있게 돼 식사 환경도 한층 안정됐다.

2015년 인수해 11년째 운영 중
365일 쉬지 않고 점심 식사 제공
단순 식사 넘어 교감 · 온기 전해
원경 스님 "부처님 모시듯 대접"

운영 시스템도 점차 체계를 갖췄다. 번호표 배부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정비했다. 스님과 직원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보다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급식소를 찾는 대부분은 가족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다.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폭력과 방임 속에 내몰린 이들, 유자녀라는 이유로 기초수급생활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몸까지 성치 않는 상황에서 가난과 고립은 더욱 깊어진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비슷한 삶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얼굴을 익히며 공동체를 이루는 교감의 장소다. 식사를 넘어 관계의 온기를 나누는 '어우러짐의 자리'가 된 셈이다.

스님은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부처님 모시듯 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급식소 운영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시장에서 남은 기부 식재료에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최상급 식재료를 엄선해 공들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정성껏 공양을 올려야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진실된 마음은 어르신들의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어르신은 임종 직전 외동딸에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급식소 때문이니, 꼭 그곳에서 봉사하며 베풀어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딸은 지금도 무료급식소를 찾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원경 스님은 "현실 속 참여가 진정한 자비이자 포교"라고 말했다.

"이론 공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듬을 때 종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탑골공원 곁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진다. 그리고 그 밥 한 그릇은 고단한 삶을 견디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동력이 되고 있다.

박지운 수습기자

공양으로 피운 자비 선순환 꿈꾸는 '정법의 밥'

불광동절 '밥할머니' 공양간



서울 불광동절 주지 선선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 10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요즘 사회는 '내 것만 챙기겠다'는 욕심이 커지면서 단절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만큼, 밥 한 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작은 무료급식소 '불광동절'.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 몇몇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커다란 식당도, 거창한 시설도 아니지만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을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잠시 쉬어간다. 법문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와 고민, 위로가 오가는 사랑방에 가깝다.

불광동절은 2025년 4월부터 선선 스님이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과 군사들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밥을 나눴던 '밥할머니' 정신을 오늘날 도심 속에서 다시 실천하고자 이 공간을 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또 공양을 받은 이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회향의 마음을 새기도록 도량을 꾸려가고 있다.

'밥할머니'는 보시할머니, 보살할머니로 불리며 조선 중기 불광동 일대에서 살았던 여성 불자로 전해진다. 선선 스님에 따르면 밥할머니는 전쟁 당시 굶주린 백성과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행주산성 전투에서는 주먹밥을 만들어 군사들을 도왔다.

선선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굶주린 중생에게 먼저 공양을 권하신 뒤 법문을 하셨다. 몸이 움직이려면 우선 먹어야 하지 않겠나"며 "보시와 지혜, 화합 정신을 몸소 실천한 밥할머니처럼 불광동절 역시 누군가를 살피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공간, 또 자연스럽게 실천행을 익혀가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양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삶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 차 한 잔 나누며 쉬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처음에는 식사만 하고 돌아가던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

2025년 4월부터 선선 스님 운영
밥할머니 보시 · 화합 정신 이어
일주일에 한 번씩 비빔밥 나눔
또 다른 실천행 이끄는 계기로

선선 스님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스님,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며 속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다"며 "공양하러 왔다가 불교를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정한 불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때 불광동절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문을 열었다. 주 메뉴는 비빔밥 같은 집밥 형태였다. 하지만 운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공양을 준비할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최근에는 내부 사정을 정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공양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선선 스님은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런 지원 없이 시작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로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며 "반찬값을 보태주는 불자도 있었고, 여러 스님들이 쌀을 보내주시기도 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걸 매번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광동절의 무료 급식이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나눔과 베풂으로 선순환하는 '정법의 밥'이 되길 기원했다.

"한 사람이라도 공양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다시 누군가를 돕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지구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선선 스님은 무료급식소 운영 외에도 인천구치소에서 10년째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상담과 교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범죄 예방, 지역사회 정화활동에 힘쓴 공로로 구치소장 표창패를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선선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연기의 가르침을 깨닫고, 분별심보다 자비심을 내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 법 산
원 로 원 장 : 도불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오, 서봉금산
총무부장: 남산
재무부장: 혜만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중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여암
문화국장: 광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진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경산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백산지견
감찰부장: 일봉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미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해월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화광, 천산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연합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예술문화협회
재단법인 불교조계종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의료법인 효성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이국철
수석부회장: 윤수경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최예원
부산신도회장: 손영만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경남신도회장: 송선근
신도회고문: 설주성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법무실장: 윤명도
기획대리: 나윤하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강남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3F (신사역8번출구) 02-511-1080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